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3 Serial No.141 2016.6. 45~64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6.34.3.45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생활의례 및 한국인 정체성

Life Rituals and Korean Ethnic Identities of Korean American Immigrants

성미애(Miai Sung)[1], 이소영(Soyoung Lee)[2*]

[1]Departmen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Montclair State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American immigrants'adjustment to American societ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ir life rituals and ethnic identities maintain or change over time and across immigration generation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amined how Korean Americans who resided in the New York City metropolitan area and New Jersey State performed life rituals and formed ethnic identities. A total of 18 Korean immigrants participated in one-on-one in-depth interviews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with the theme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mericans performed life rituals integrating both Korean and American cultural aspects. Many Korean Americans attempted to perform life rituals based on American cultural holidays and procedures. However, a majority of these Koreans also strived to maintain Korean ethnic identities and also practice traditionally Korean life rituals as a way to preserve this ethnic ident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cross time a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prefer to maintain their Korean cultural identity, while not shunning the adoption of typical "American" rituals. The way that Korean Americans practice and develop identities differs very little across immigration generation.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 on how the Korean government may support foreigners and immigrant families in South Korea and Korean Americans' acculturation processes in the U.S.

▲주제어(Key Words) : 한국계 미국 이민자(Korean American immigrants), 생활의례(life rituals), 한국인 정체성(Korean ethnic identities)

Ⅰ. 서론

본 연구는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 1세대, 1.5세대, 2세대의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이 어떤 맥락과 의식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 또는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이민은 세계화 시대의 보편적 현상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이 중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는 전체 이민자 중 61.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1)로, 이민을 선택하는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미국행을 택하고 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미국 내 한국계 이민자의 수는 1,706,822명으로, 아시안계 미국인 중 6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effel, Rastogi, Kim, & Shahid, 2012).

일반적으로 국제 이민을 살펴본 연구는 크게 이민을 선택하는 결정 요인과 이민 과정 및 패턴을 살펴본 연구와

• 본 논문은 2014년 후기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한 것임.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Monclair State University, 1 Normal Ave Montclair, New Jersey, USA, tel: +1-973-655-3452, E-mail: leeso@mail.montclair.edu

이민자들이 이민국의 주류사회에 어떻게 통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번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계 미국 이민자가 어떤 수준으로,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미국의 주류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 역시 이민사회가 된 상황에서 한국 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에도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이 어떤 맥락과 의식 속에서 형성, 지속, 또는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대체로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현재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가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oeffel et al., 2012),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생활의례나 민족 정체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계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 중에서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두 변수가 이민자의 일상생활 및 전반적 삶의 지향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Berry(1997, 2002)는 문화변용을 문화적 접촉이 동반하는 문화적, 심리적 변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때 문화적 변화란 이민자 집단 내의 관습, 경제적, 정치적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심리적 변화는 이민자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태도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이민자는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정도와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 다양성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Berry(1997, 2002)는 이러한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이민자의 적응양식을 분리, 동화, 통합, 주변화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민자들이 자국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이민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배워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변수는 동화주의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미국 (H. Kim, 2011) 내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동화와 통합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게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세계의 의미와 지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여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 1세대, 1.5세대, 2세대의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세계가 글로벌해지면서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 시점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생활방식과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내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기획할 때 시사점을 주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특성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01년에 처음 한국인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1902년과 1905년에 약 7,000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하와이에 이민을 갔고, 그 중에 약 2,000명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였다(T. Chi, 2005).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일본이 한국인의 미국 이민을 중단했으나 이 사이에도 미국에 온 한국인 이민자나 정치망명자, 또는 유학생들의 사진 신부들이 이민을 떠났다(P. Min, 2006).

이민은 이민정책과 규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시 미국의 이민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크게 이민법 부재기(1776-1788), 무제한적 입국기(1789-1874), 제한 초기(1875-1917), 제한 절정기(1917-1941), 규제 완화기(1941-1980), 불법이민 관심기(1980-2001), 신제한기(2011-현재)로 나누어볼 수 있다 (H. Lim, 2012). 이 중 한국인의 미국 이민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1924년의 이민법은 아시아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그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아시아인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법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이민법을 연구한 Lowe(1996)는 미국 시민권은 아시아 이민자들을 국가 정치 영역 안으로 마지못해 포함시키면서도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가야 맞는 존재로 주변화 시켜 규정해 왔다고 밝혔다. Lowe(1996)는 이 시기 이민법에서 아시아 이민자에 대해 경제적인 요인과 국가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인이 갖는 경계와 염려를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다(S. Lee, 2008에서 재인용).

그러나 경제적 필요에 맞추어 이민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1965년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이민 및 국적법을

수정하였다(S. Lee, 2008). 그리고 1924년부터 시행되어온 출신국가별 이민할당제를 폐지하였다. 대신 가족의 재결합과 이민자의 기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계 이민은 전문가와 숙련노동자 등 취업이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의 5년의 영주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권을 얻은 후에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었다(C. Lee, 2007). 한국 역시 1960년대, 70년대에 전문 기술 자격증을 가진 이들, 주로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 기술자, 과학자 등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다. 이들은 언어 문제와 외형상의 차이로 백인 문화에 흡수되지 못했으며, 현재 LA, 뉴욕, 시카고를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이 형성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Jo, 1999, 136). 그러나 이 이후부터는 전문 기술 자격증을 가진 이민자의 수는 극히 작아졌으며, 가족 초청에 의한 한국인의 이민이 미국 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J. Lee, 2002).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이민자들은 미국에 온 이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과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서 하던 전문직을 버리고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하향적 사회이동을 하여 신분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Y. Yang, 2008).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의 경우, 언어소통이나 문화적응에 있어서 이민 1세대에 비해 비교적 문제가 없어서 전문직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수직적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기대되었다. 이러한 기대 속에 이민 2세들은 미국에서 주류사회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인들은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고 전문직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보고(Y. Yang, 2008)도 있다. 또한 미국 내 한국 이민자의 빈곤에 관한 연구(K. Min, 2006)를 살펴보면, 이민 2세대가 이민 1세대보다는 더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지만 이민 1.5세대보다는 더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세대가 지남에 따라 미국에서 축적되는 특정 인적 자본의 증가는 동기의 약화에 의해 상쇄된다는 G. Carliner (1980)의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로 보았다. 즉 이민이라는 열악한 조건에 맞서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이민 1세대의 강력한 동기는 이민을 와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이민 1.5세대에게는 계승되지만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자란 이민 2세대에게는 계승되지 않은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S. Choi(2011)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그들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있어서 미국인 전체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인 백인보다 더 많이 성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미국인 전체보다 높고 백인과 비슷함으로써 비교적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이민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계 미국인의 실태 및 미국 내 한국 이민자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계 미국 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계 미국 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한국에서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한국계 미국 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많다. 즉 미국 이민자 가족 내 자녀 발달과 부모됨에 관한 연구(E. Kim, H. Im, E. Nahm, & S. Hong, 2012; L. Kim, C. Knudson-Martin, & A. Tuttle, 2014; S. Lee, 2012), 이민 1세대 부모와 1.5세대 및 2세대 자녀 간 관계에 대한 연구(H. Kang & R. W. Larson, 2014), 노인 이민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연구와 이들에 대한 지원망에 관한 연구들(H. Lee & D. Mason, 2014; H. Yoon & Y. Jang, 2014)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이 이민자로 생활할 때 가족관계가 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이민자들의 경우, 대체로 우울증 지수가 높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성인 자녀와 관계가 좋은 경우,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 Yoon & Y. Jang, 2014).

한편, 이민 온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계 이민자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다. 즉 미국에 이민 온 부모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는 미국식 부모됨에 대한 정보를 습득, 관찰하면서 전통적인 유교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 Kim, H. Im et al., 2012). 또한 미국식 문화 방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부모됨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Lee, 2012). 그러나 이민 2세대의 부모됨에 있어 가치관의 변화 방향은 미국식으로의

동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과 한국식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을 혼용적으로 사용하는 등 통합적인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 Kim, C. Knudson-Martin et al., 2014). 특히 이민 2세대의 경우, 성인이 되고 삶의 경험이 넓어지면서, 이민 1세대인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희생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부모-자녀관계에 작용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해 각별한 생각을 갖는다는 연구결과(H. Kang & R. W. Larson, 2014)도 보고되는 등 미국이라는 이민사회의 적응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다양하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국계 미국 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재미교포를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보면서 이민생활 적응을 살펴본 연구들(S. Kang & K. Kim, 2012; J. Yang, 2010; K. Han, 2014), 문화변용과 재미 한인의 삶의 만족감과 변화를 연결해서 본 연구들(C. Park & J. Seong, 2012; Y. Choi & Y. Kim, 2010; S. Moon, 2012), 이민 세대별로 적응실태를 살펴본 연구(H. Pyon, 2012), 이민자의 민족 정체성을 살펴본 연구(J. Yi, 2008),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들(H. Kim, 2011; H. Lim, 2012)로 나눠볼 수 있다 .

이민생활 적응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 이민자는 이민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겪으면서 성공하거나 살아남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미래지향형, 현실안주형, 갈등형, 자포자기형의 4가지 유형을 보인다고 밝혔다(J. Yang, 2010). 또한 진입효과(이민자들이 지역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미국 태생의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설), 동화효과(이민자들이 이민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 태생의 집단과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감소한다는 가설), 코호트효과(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 집단의 질적인 변화가 존재한다는 가설)를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을 살펴본 연구(S. Kang & K. Kim, 2012)에 따르면, 이민 초기에는 진입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민기간이 길어지면서 동화효과가 보여 소득 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10년의 이민기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원하거나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화변용과 재미 한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결한 연구(C. Park & J. Seong, 2012)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경우 문화변용 전략 중 통합 전략과 분리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미국의 주류사회로 동화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삶의 만족감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통합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삶의 만족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내 한인가정의 경우 주류문화인 서구문화보다는 대체로 한국문화권의 특징을 보이는 등 이민 1세대의 경우 문화 변화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의 방식에는 민족의식과 전통 문화가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인종적, 문화적 소수민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불이익을 완충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민 2세대 청소년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국의 전통 가족 문화를 내재화하고 있고 문화 습득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성공적인 가족 내 민족 사회화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카고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문화변용을 살펴본 연구(S. Moon, 2012)에 따르면, 시카고 코리아타운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미디어는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한국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더 큰 영향을 주고, 동시에 이곳에서 접할 수 있는 미국 미디어는 한국계 이민자들로 하여금 미국적 문화 가치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미디어가 한국계 이민자들로 하여금 한국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를 동시에 함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냈다.

한편, 이민 세대별로 적응실태를 살펴본 연구(H. Pyon, 2012)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이민을 온 1.5세대가 이민 이후 청년기의 성장과정과 문화적 적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미한인의 여가와 민족정체성을 살펴본 연구(J. Yi, 2008)에 따르면, 이민 연령이 높고 영어 숙련도가 낮고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응답자의 여가동반자는 주로 재미 한인이었으며, 재외동포 정체성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 연령이 낮고 영어 숙련도가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여가동반자의 민족 유형은 다양하였으며, 이들은 미국 사회 내의 소수민족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생활의 장에서 접촉하는 동반자의 민족 유형이 다양해질 때 이들은 미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정착하고 있었다. 미국의 다양한 이민정책을 살펴본 연구들(H. Kim, 2011; H. Lim, 2012)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정책은 겉으로는 통합을 지향하지만, 기저에는 WASP 주류문화를 통한 통합을 지향하는 동화주의가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계 미국 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의 문화적, 심리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생활의례 및 정체성의 변화를 밝힌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계 미국 이민자 1세대, 1.5세대와 2세대를 중심으로 생활의례와 정체성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 지속 또는 유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이민자이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한국이민자가 많이 찾는 공공장소인 대학교, 교회, 노인정, 코리아타운에 있는 상점 등에 연구 취지를 설명한 광고지를 돌려 대상을 찾았다. 그리고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연구 대상에 적합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연구 참여자를 확대 표집 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이민 세대 및 연령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한국계 이민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접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였고, 본 연구계획서가 연구 책임자 및 공동 책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논문 작성 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녹음 파일과 녹취록 및 연구노트 모두를 폐기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각각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본 연구자들 중 미국 현지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가 직접 일대일 방식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심층면접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은 먼저 인구통계학적 정보(연령, 가족사항, 이민 온 때, 이유, 소득, 교육수준, 언어 사용 등)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작성한 후,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된 배경,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생활의례 양식, 미국 한인 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에 응답하였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한국어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편하지 않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2015년 2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면접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커피숍, 개인집, 연구실,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시간은 한 사례 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향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면접 중 비교적 유사한 진술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면접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 과정을 거쳐 확보한 연구 참여자는 총 18명이었다.

모든 심층면접 내용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였으며, 한국어로 인터뷰한 내용은 한국인 전사자에게, 영어로 인터뷰한 내용은 미국 원어민 전사자에게 맡겨 치밀하게 전사하도록 하였다. 영어로 된 녹취록은 한국에 있는 연구자가 먼저 한글로 번역한 후 그 번역본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자가 말한 의미나 뉘앙스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한글로 전사한 내용은 연구자들이 개별 코딩하였으며, 개별 코딩한 내용 중 연구자 간 불일치한 경우에는 심층면접 때 작성한 연구 노트와 개별 녹취록의 맥락 내에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 9명, 여성 9명으로 총 18명이었다. 이민자 세대 구분은 한국에서 이민자를 구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구분법을 사용하였다. 즉 본인 대에서 처음 이민을 간 경우에는 이민 1세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부모세대의 이민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간 경우에는 이민 1.5세대, 그리고 이민 온 부모세대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경우에는 이민 2세대로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에서는 이민 1세대가 7명(남 4명, 여 3명), 이민 1.5세대가 8명(남 3명, 여 5명), 이민 2세대가 3명(남 2명, 여 1명)이었다. 이중 이민 1.5세대에 해당되는 연구 참여자 I의 경우, 부모의 유학으로 인해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성장기는 모두 한국에서 지냈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경우였기 때문에 이민 1.5세대로 분류하였다. 다른 이민 세대에 비해 이민 2세대의 연구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을 살펴보는 데에서는 이민 2세대도 다른 이민 세대와 비교적 유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사례 수가 주제 분석법을 이용하는 데 무리를 주지 않았다.

이민 세대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1세대 평균 연령은 58.14세(범위: 25세-76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2명, 전문대 졸업 1명, 대학 졸업 2명, 대학원 졸업 2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7명이었으며, 함

Table 1. Participants'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eration	ID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Living together	Religion	Occupation	Year of immigration	Age at Immigration	Purpose of immigration	Citizenship status	Partner nationality	Income ($)
1 generation	A	Male	46	Bachelor's Degree	Married	Spouse	None	Antique Furniture Restoration	1997	28	Study	Permanent Resident	Korea	110,000
	B	Male	45	Master's Degree	Married	Spouse, Son, Daughter	Protestant	Pastor	2005	35	Study	Permanent Resident	Korea	60,000
	C	Male	52	Doctoral Degree	Married	Spouse, Son	Roman Catholic	Professor	1994	31	Study	U.S. Citizenship	Korea	110,000
	D	Male	76	High school	Married	Spouse, Roommate	Protestant	Inoccupation	1976	37	Child education	U.S. Citizenship	Korea	26,280
	E	Female	39	Community college Degree	Married	Spouse, Son, Daughter	Protestant	House wife	2005	29	Church Ministry	Permanent Resident	Korea	36,000
	F	Female	74	High school	Married	Spouse	Roman Catholic	Inoccupation	1976	35	Child education	U.S. Citizenship	Korea	100,000
	G	Female	75	Bachelor's Degree	Married	Spouse	Other	Inoccupation	1959	19	Study	U.S. Citizenship	US	120,000
1.5 generation	H	Male	52	Master's Degree	Married	Spouse	None	Consulting	1978	15	Economic situation	U.S. Citizenship	Korea	80,000
	I	Female	25	Community college Degree	Never married	Roommate	Protestant	Inoccupation	2007	17	Father's study	U.S. Citizenship (born in the USA)	-	0
	J	Female	54	Bachelor's Degree	Married	Spouse	Protestant	Dry cleaner owners	1975	14	Economic situation	U.S. Citizenship	Korea	40,000
	K	Female	55	High school	Married	Spouse, Sister	Protestant	Self employee-cleaner	1973	13	Economic situation	U.S. Citizenship	Korea	45,000
	L	Male	30	Bachelor's Degree	Never married	Younger brother	None	Freelancer	1993	8	Father's job	Permanent Resident	-	45,000
	M	Male	42	Master's Degree	Married	Spouse, Son, Daughter	Protestant	Investment Management	1979	6	Better lives	U.S. Citizenship	Korea	500,000
	N	Female	23	Bachelor's Degree	Never married	Parents, Sister	Roman Catholic	Internship at the children's museum	2001	9	Economic situation	Permanent Resident	-	0
	O	Female	50	Bachelor's Degree	Divorced	Daughter	Protestant	Inoccupation	1975	10	Child education	U.S. Citizenship	-	0
2 generation	P	Male	26	Bachelor's Degree	Committed relationship (Viet Nam)	Mother	Protestant	English instructor	1980년	Born in US	Better lives	U.S. Citizenship	Viet Nam	10,000
	Q	Male	37	Doctoral Degree	Never married	Alone	Protestant	Physician	1974	Born in US	Study	U.S. Citizenship	-	250,000
	R	Female	20	High school	Never married	Alone	None	Inoccupation	1973	Born in US	Child education	U.S. Citizenship	-	0

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는 배우자(3명), 배우자와 자녀(3명), 배우자와 룸메이트(1명)였다. 종교는 개신교(3명)가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 2명, 무교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이민 1세대의 이민 시기는 1959년부터 2005년까지 다양하였다. 195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1명, 197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2명, 199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2명, 200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2명이었다. 이민의 목적으로는 본인의 학업(어학, 학위취득 등)을 위해서 이민 온 경우가 4명,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민 온 경우가 2명, 교회 사역을 위해 이민 온 경우가 1명이었다.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명이었으며, 3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6명) 배우자는 모두 한국인이었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했는데, 현재 은퇴 후 무직(3명), 교수(1명), 목사(1명), 고가구 복원 사업(1명) 등이었다. 이민 1세대 연구 참여자의 월 평균 소득은 $80,325였다. 2014년 당시 미국 가구 소득의 중앙값이 $53,65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민 1세대 연구 참여자의 평균 소득은 중간 수준 이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민 1.5세대의 평균 연령은 41.38세(범위: 23세-55세)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1명, 전문대 졸업 1명, 대학 졸업 4명, 대학원 졸업 2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4명, 미혼 3명, 이혼 1명이었으며,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

로는 배우자(2명), 배우자와 자녀(1명), 남동생(1명), 부모님과 여자형제(1명), 배우자와 여자형제(1명), 자녀(1명), 룸메이트(1명)였다. 종교는 개신교 5명, 무교 1명, 천주교 1명이었다. 이민 1.5세대의 이민 시기는 1973년부터 2001년까지 다양하였는데, 197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5명, 199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1명, 200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2명이었다. 이민의 목적으로는 부모의 취업 등 경제적 이유로 이민 온 경우가 4명, 아버지의 학업 때문에 이민 온 경우가 1명, 아버지의 회사 발령 때문에 이민 온 경우가 1명,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이민 온 경우가 1명,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 온 경우가 1명이었다.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6명이었으며, 2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4명) 배우자는 한국인이었다. 직업의 종류는 프리랜서(1명), 펀드매니저(1명), 인턴(1명), 세탁소 운영(2명), 상담사(1명), 무직(2명)으로 다양하였다. 이민 1.5세대 연구 참여자의 월 평균 소득은 $166,250로, 2014년 당시 미국 가구 소득의 중앙값($53,657)과 이민 1세대 연구 참여자의 평균 소득 수준($80,325)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었다.

이민 2세대의 평균 연령은 27.67세(범위: 20세-37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1명, 대학원 졸업 1명, 고졸 1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약혼(베트남인) 1명, 미혼 2명이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는 어머니(1명), 그 외는 혼자(2명) 살고 있었다. 이민 2세대의 이민 시기는 1973년부터 1980년까지 다양하였는데, 197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2명, 1980년대에 이민 온 경우가 1명이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유로는 모두 부모님의 이민 때문이었는데, 부모님이 이민 온 이유로는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위해서 이민 온 경우가 1명, 아버지의 박사학위 취득 때문에 이민 온 경우가 1명,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온 경우가 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은 영어강사(1명), 의사(1명), 무직(1명)이었다. 이민 2세대 연구 참여자의 월 평균 소득은 $86,667였다.

3. 자료 분석

녹취된 질적 자료는 주제 분석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법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따라가기 보다는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즉 주제 분석법은 현상에 대한 편견은 배제하되 연구자가 일정한 주제의식을 갖고 자료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S. Kim & L. Kim, 2014).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제 분석법이 가장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접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고, 둘째, 심층면접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코딩을 실시하며, 셋째, 코딩 내용 중 유사한 내용을 묶으면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고, 넷째, 주제에 따라 핵심 자료를 정리하며, 다섯째, 전체적으로 도출한 주제 및 내용이 무리가 없음을 검증한 뒤, 여섯째, 연결되는 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기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명절의례, 생일의례, 통과의례, 한인교회, 한국계 이민자 커뮤니티, 한국인 정체성,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코딩이 되었다. 이러한 코딩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소주제는 “한국식 생활의례를 지낼 수 있는 이민 1세대의 사망과 미국식 생활의례”, “미국식 생활의례에서 준비되는 한국 음식”, “겉은 미국식, 속은 한국식 통과의례”, “한인교회 중심의 의례”, “한국식 의례의 지속성”, “한국인 정체성 대 미국인 정체성”, “배우자나 인척으로 우선시되는 한국인”, “한국인, 나아가 동양인 중심의 네트워크” 등이었다. 이러한 소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형은 미국식, 내면형은 한국식인 생활의례”, “한국인 정체성”라는 대주제를 구성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현형은 미국식, 내면형은 한국식인 생활의례

1) 한국식 생활의례를 지낼 수 있는 이민 1세대의 사망과 미국식 생활의례

생활의례는 일상생활의 지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민 1세대, 특히 여성이 생존해 있고, 친척들이 연쇄 이민을 온 경우에는 거의 한국의 명절을 다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으로는 미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생활의례에 나타난 모습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생활의례를 유지하고 있었다.

> “저희 엄마 살아계실 때는 뭐 구정도 그냥 철저하게 갔죠(지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만 계시다보니까 구정 같은 경우에는 신정 때 세배도 하고 그랬으니까. 구정 때는 좀 옵셔널(optional)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 생신? 그리고 땡스기빙(thanksgiving)?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정도만 머스터(must)고 나머지들

은 뭐 예를 들면 중간 중간에 뭐 어머님 기일 이라던지, 그럴 때는 모이는데. 하튼 다는 안 모일 때가 많아요." (H)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한국 명절을 다 챙겼어요 엄마는 오곡 밥하는 것부터 다 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추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미국 명절을 더 챙기는 것 같아요" (K)

그러나 한국식 생활의례를 지내게 하는 구심점인 이민 1세대 여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이라는 물리적 상황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의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경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을 쉴 수 있는 미국의 휴일을 중심으로 명절의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례를 행할 수 있는 미국의 휴일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여기서 챙기는 홀러데이(holiday)는 어쩔 수 없이 챙겨요. 미국 문화가 너무 뭐 사줘야 된다 그런 비즈니스기 때문에" (I) 라는 진술처럼, 미국에서는 서로 챙겨야 한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을 중요한 생활의례로 인식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게(미국 홀러데이) 훨씬 더 와 닿아요. 그래서 추석은 뭐 거의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가구요, 간혹 그냥 음식 해먹는 정도. 그러니까 뭐 송편 사다먹고, 아니면 뭐 좀 기분 좋으면 추석 같은 경우는 기분 좋으면 뭐 무슨 차례밥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냥 기분 내려고 먹지 그게 추석이라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휴일이 아니니까" (A)

"저는 땡스기빙 이런 미국적인 홀리데이가 잘 와 닿아요 왜냐면 설날 이럴 땐 쉬지 않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한국어 반도 있었고 약간 한국아이들이 꽤 있어서 설날에 안와도 엑스처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안 갔죠 (웃음) 안가긴 했는데 땡스기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피부에 막 와 닿는 반면 설날 추석 이런 거는 한국에서 굉장히 큰 명절이지만 여기서는 쉽게 피부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미국 홀러데이가 더 친숙하죠" (N)

한편,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은 한국 명절이지만, 예외적으로 새해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날인만큼, 한국 명절 중 신정만 새해라는 의미로 지켜지고 있었다. 특히 설날은 음식도 고유하고 세뱃돈을 주고 덕담을 하는 의례의 형식과 의미가 명확해서 다른 유명무실한 한국 명절에 비해 비교적 한국식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떡국도 먹고, 떡국 좋아하구요... 새해가 제가 지내는 전통식 홀러데이예요... 그러나 다른 명절은 전혀... (안 지내요)..." (P)

"한국 신정은 항상 지내요... 세뱃돈 받으면 기분도 좋구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이 지내는 것처럼 지내죠..." (I)

2) 미국식 생활의례에서 준비되는 한국 음식

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미국식 명절 의례도 완전 미국식으로 지내는 것은 아니었다. 형식은 미국식 명절 의례였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한국식이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내용면에서 한국식이 많이 남아있는 요소는 명절에 준비하는 음식이었다. 특히 "만나서... 주로 먹는 거고. 음식해다가 각자 해갖고 와서 이제 합쳐가지고 같이 먹고 얘기하고" (H) 라는 진술처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어떤 의례이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계 이민자의 경우에도 준비해서 먹는 주된 음식은 한국 음식이었다.

명절 의례에 요구되는 특별식이 있는 추수감사절의 경우, 이민을 온 지 오래된 경우에도 칠면조 요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한국식 입맛에 맞지 않아서 닭으로 대체해서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미국식 명절 음식을 요리하기가 쉽지 않거나 이러한 요리가 한국식 입맛에 맞지 않아서 미국식 명절 의례에서도 전통적인 미국식에 맞추어 지내지는 않고 있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낸 적이 없어서 저는 슬픈데요. 저는 미국식 추수감사절 같은추수감사절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터키(turkey)를 만들어야 할지를 몰라서... 우리 부모님은 미국식 추수감사절 지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R)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민 온 가족이라 땡스기빙 때도 터키 먹어본 적이 없어요 터키 맛없다고 치킨 주더라구요 (웃음) 없을 때도 많고

그냥 잡채 해 먹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는 홀리데이니까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냥 어머니가 특별한 음식 몇 개해서 다같이 먹고 그런 수준이지" (O)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명절 의례에서 준비되는 음식은 주로 한국 음식이었다.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한국 음식은 밥, 김치, 김치찌개 등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전형적인 한국 음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는 이민 세대에 구분 없이 공통적이었다.

"음식은 한국음식하고... 밥, 김치... 한국음식 꼭 끼고, 그리고 이제 터키하고 뭐 미국식 음식 좀 있고. 또 특히 이제 애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걔들은 잡식이니까 두 개 다 주죠." (H)

"우리는 꼭 김치찌개가 있어야 해요 우리 아들하고 조카애들 모이면 김치찌개가 없으면 무슨 날이어도 왔다가 그냥 나 갈래 농담으로 그래요. 김치찌개가 우리 집안에는 제일 중요한 음식이예요. (중략) 김치찌개 꼭 있어야 해요 우리는 큰 냄비에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 없어져요 그날..." (K)

3) 겉은 미국식, 속은 한국식 통과의례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의 통과의례는 미국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표현되는 양식은 전형적인 미국식이었다. 결혼식의 경우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루고 칵테일 사교파티 후 저녁 식사를 겸한 미국식 리셉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례식도 주로 교회나 성당에서 장례를 치루고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 식으로 지내고 있었다.

"교회를 큰 미국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결혼식하고 끝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정원 같은 데가 있는 거기서 칵테일 아워(hour) 세 시간 동안 하고 그거 끝나고 레스토랑 가서 디너 리셉션 했죠... (중략) 장례식 거기서 다하고 미국식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장사 치르고 교회에서 가서 예배... 식구들이 가서 보고..." (K)

그러나 이렇게 미국식으로 의례를 지내는 경우에도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형식은 미국식이었지만, 한국식 의례가 습합되어 있어 교회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에도 삼일장처럼 한국식으로 지내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손님들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로 90%가 교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한국사람 아닌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 어.. 아무래도 퍼센테이지(percentage)로 봤을 때는 주로 한국 사람이 많았죠". (H)

"삼일장 그런 거는 한국식으로 다 하고... 묘지 쓰고... 뉴저지에 우리는 거기에 친척들(묘소)도 다 거기 있어요..." (K)

4) 한인교회 중심의 의례

한국계 이민자에게 있어 교회는 신앙의 장소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기는 교회하면 소셜 펑션(social function)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그러는데..." (O) 라는 진술처럼 한인 교회는 이민자에게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한국인 친구를 많이 알게 해주며, 한국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명절도 교회가 주도적으로 주최하면서, 개별 가족 단위로 의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의례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 친구가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 만나는 한국인 친구는 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입니다" (M)

"어렸을 때는 미국애들이죠 네네 우리아들도 대학교 다닐 때도 걔가 첨에는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걔가 처음에는 미국애들만 사귀고 그러더니 이쪽에 오더니 트랜스퍼(transfer)하고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한국애들을 많이 더 사귀더라구요..." (K)

"사라지고 이제 뭐 한국에서 가족들이 하는 그런 문화나 이렇게 특별한 설날 이런 것도 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니까 제가 행사 같은 것도 참여를 하는 거지 가족에 대한 그런 정은 없어지게 되더라구요..." (I)

5) 한국식 의례의 지속성

연구 참여자 중 “저는 의례나 한국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진술한 이민 1.5세대인 연구 참여자 M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문화의 유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민 1.5세대인 연구 참여자 L씨와 이민 1.5세대인 I씨는 제사를 가장 독특한 한국 문화라고 인식하면서 전통적인 제사 문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민을 온 이민 1세대인 연구 참여자 A씨도 한국식 전통의례를 존중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전통의례를 지켜서 지내기를 원하였다.

> “제사지내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국 문화가 전 세계 봐서도 유니크(unique)한 면이 세잖아요 그걸 잘 킵(keep)해주는 그런 독특한 행사들이니까...” (L)

> “저는 제사를 제 만약에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냐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손자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향(香)해서 사진이랑 떡이랑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중략) 그런 걸 제 할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제 2세나 제 자녀들은 꼭 한국 문화나 설날 제사 이런 건 다 따라야 해요 이렇게 그런 건 놓고 싶지 않아요.” (I)

> “(한국식) 전통 의례에 대한 걸 지켜야 된다는 건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만일 그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중략) 그런걸 보면 그게 그냥 허례허식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시대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거여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존중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부모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할 생각은 있구요. 네. (A)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활의례를 한국식으로 지내는 것을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연결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민 사회에서도 본인의 출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민 1.5세대인 연구 참여자 L씨는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식 제사절차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 “남자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국에서 사셨는데 (한국식 제사를) 하시더라구요 할아버지 할머니 스스로 그걸 하니까 영향을 받는데 남자친구도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딱 박혀있어서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것마저도 안하면 한국인이 아닌거 같아요 무시하게 되는 거 같아요...” (I)

> “큰집이나 항렬이 높은 친척형님들이 다 하셔서 배우고는 싶어요. 이게 중요한 한국문화의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잘 쓰는 방식 이런 게 있잖아요 올려놓는 음식 이런 거 하고 절하고 순서 횟수 이런 거 다 언젠간 배우고 싶어요...” (L)

2. 한국인 정체성

1) 한국인 정체성 대 미국인 정체성

연구 참여자들은 “저는 한국인이죠 이민 1세대인데...” (F), “나는 죽어도 한국인이다” (D) 라는 이민 1세대의 진술이나 이민 1.5세대의 “저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K) 라는 진술처럼, 미국에 살고 있어도 아무런 혼란 없이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 D씨나 K씨는 이민을 온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민생활과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한국인 정체성은 아무런 혼란 없이 지켜지고 있었다.

> “아유 (저는) 한국 사람이예요. 우리는 내가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이지만 한국 사람들을 위해 쓰지 미국을 위해 쓰는 건 싫어 왜냐면 여기는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고...” (F)

> “사실 저는 미국인이랑 저랑 똑같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한국인이고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온거고 내가 성공해서 한국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I)

> “나는 죽어도 한국인이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

합하면 한국 편 들어요 애들은 미국 편 들어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편이야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이다 미국시민권은 살기위한 수단으로 온거지 내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미국 시민이 된 건 아니예요 솔직한 말로..." (D)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인 정체성을 초지일관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오버랩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보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서적 측면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미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훨씬 긴 이민 1.5세대의 경우에도 정서적으로는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내부적으로 정서를 갖다가 정리하기를 나는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에 더 가깝다. 그런 생각이 더 세졌어요. 전부 다. (중략) 그러니까 제가 15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지금 36년, 37년을 갖다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또 15년도 조그만 베이비일 때고. 또 뭐 빼면은 10년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제가 정체성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사람이라는 게 더 좀 설득력이 있어요. (H)

그리고 이민 1.5세대인 연구 참여자 I씨는 미국인들은 미국인과 동양인을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로 구분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미국인들과는 달리 동양인은 가족주의에 입각해서 가족과 연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인들의 미국인과 동양인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본다면, 본인은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근데 제가 어떤 면에서 한국인이냐면 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한국인인거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살다보니까 특히 백인 분들이 동양인을 어떻게 연관 짓냐면 제가 만약 선택하고 결정한 게 있으면 그게 너의 결정이나 부모님의 결정이냐 많은 미국 백인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아 동양인이라는 정서가 이 미국사람한테는 그렇게 자리 잡혀 있구나 그런 마인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들었을 때 아 내가 정말 한국인이구나..." (I)

또한 이렇게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계 이민자, 또는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는 것에는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를 보는 시선도 작용하고 있었다. 즉 정체성이 결정되는 데에는 개인의 내적 의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타인의 시선도 작용한다. 따라서 이민국의 주류사회가 이민자를 구분해서 보는 시선이나 완전히 통합하지 않고 배타성을 보이는 태도도 이민자가 민족 정체성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유로 본인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주류사회의 배타성이나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종차별을 경험했느냐 유무와 상관없이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한국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제 자신을 미국사람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대학교 생활을 하다보니까 너의 문장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저를 완전 미국 본토사람들이 저를 못하는 캐릭터(character)를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자꾸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니까 아 나는 정말 본토 미국사람이 될 수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미국영어를 미국사람만큼 했더라면 내가 미국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해보고 친구들이 다 2세라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2세 애들이 그거에 대한 리플라이(reply)가 나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나는 내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미국은 막말로 하면 백인의 사회고 자기는 그걸 알면서 살아왔다고 자기는 인종차별도 당해봤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인종차별을 당해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도 그걸 들으니까 가치관이 형성이 되더라구요 저는 아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영어를 미국사람들 만큼 쓰고 들었더라면 미국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아 '나는 한국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I)

한편, 이민 1.5세대 중에서도 미국 시민권과 한국인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본인의 한국인 정체성이 침해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연유로 연구 참여자 L씨나 연구 참여자 K씨는 의도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고 영주권만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가족의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시민권을 땄다고 밝혔다.

> "주면에 저희만큼 오래 살았던 친구들은 다 시민권을 오래전부터 땄지만 저랑 동생은 여기 오래 살수록 부모님이랑 생각차이가 느껴지는걸 우리가 느끼고 뭔가 우리가 코리안 아이덴터티(Korean identity)를 지키려면 좀 노력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쉘로우(shallow)한 생각이지만 일부러 시민권은 안 따고 영주권만 몇 년째 가지고 있어요." (L)

> "저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1997년돈가 그때 시민권 땄어요 그때 할 수 없이 엄마 소원이 내가 시민권 따는 게 소원이라고 왜냐면 미국에서 살려면 시민권을 따야하니까 엄마소원이라고 그래서 엄마아버지가 저 끌고 가서 이민국에 가서 시민권 선사하고 그럴 때 그래서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시민권 따냐 난 싫다 그렇게 살았어요" (K)

그리고 이민자들에게서 관찰될 여지가 많은 민족 정체성의 혼란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에 이민을 온 이민 1.5세대나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민 2세대 중 일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거나 보고되었다. 특히 이민 2세대인 연구 참여자 Q씨는 미국 사회에서 출생해 성장하면서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상태에서 이 세상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타인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 Q씨는 주위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상관없이 '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다.

> "마인드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긴 해요 약간 마인드는 이제 무의식적인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거고 미국식이고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마인드가 쫌 강한 거 같긴 한데 근데 한국 마인드도 굉장히 잘 섞여 있는 거 같아서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은 애매한 입장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민 오신 어르신들은 한국 마인드가 강하신분이 많구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식 마인드가 강한 아이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렸을 때 온 아이들 근데 너무 어린나이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나이 때 온 애들 1.5세 이민자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더 많아요 그런 이야기 해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마인드가 강한 게 있죠 이쪽도 아닌 거 같고 저쪽도 아닌 거 같고 왜 혼혈아 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한다 하잖아요 이 나라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하고 다른 나라 갔더니 너 다른 나라 사람이야 하니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고..." (N)

> "정말 자라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다. 약간 이 세상에 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쪽에서도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놀리고(웃음).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 이제는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이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뭐 누가 뭐래? 누가 후 케어(who cares)야? 그냥 내가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만한다면 그게 그거죠." (Q)

한편, 이러한 한국인 정체성도 일관되게 하나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정체성이 다르게 정리되기도 하였다. 이민 2세대인 연구 참여자 R씨는 자신을 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한국인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민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 A씨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끊고 그냥 미국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 "저는 한국인이라기보다 미국인이죠... 특히 지금은 부모님을 떠나 여기 대학에 있으니...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한국인이라고 느끼죠... 제 생각으로는 (정체성도)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R)

> "오히려 더 굉장히 강해졌었거든요. 굉장히 불

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해졌었고, 굉장히 흥분도 많이했었고. 한국에 무슨 일 벌어지면. 그랬는데 요즘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내에게 얘기하는 게 그냥 미국인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그거는 민족성을 떠나가지고 나라라는 게 국민을 잘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굳이 국민들이 그 나라를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

2) 배우자나 인척으로 우선시되는 한국인

이러한 한국인 정체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배우자나 인척으로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에서였다. 연구 참여자의 부모나 본인들은 이민 세대에 상관없이 언어적 문제나 며느리나 사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보이는 문화적 차이 문제, 그리고 음식을 공유하는 문제로 인척이나 배우자로 한국인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나 인척은 대화도 잘 되고 편안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벽을 느끼게 되어 헤어지기 쉽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한국 사람이었죠. 미국 사람. 미국여자 며느리 얻기 싫어서... 막연히. 말도 안통하고. 말도 안통하고 또 이제 또 한국.. 정서상 며느리는 얻는 그런 저기였는데 미국사람, 미국 여자랑 결혼시키면은 아들을 뺏기는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좀 했어요. 그 뭐. 뭐지 데이트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만큼은 한국 여자랑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중략) 일부러 데이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한국.. 여자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더 끌리고. 통하는 게 더 많고.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애요. 릴레이션쉽(relationship)에... (중략) 일단 누구를 데려오던지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어.. 이제 저희 부모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니까 자기 며느리 들어오고 사위도 자식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분들이 이렇게 크면서 며느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며느리한테 바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외국 사람이랑 해 놓으면은 그게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 자체가 없으니까..." (H)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말 한국여자가 제일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한테 맞고, 그리고 저는 외면적으로 미국여자를 봐도 뭐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어우 정말 이쁘다. 그래도 그.. 친밀감으로 진짜 친하게, 그 가깝게. 그.. 어... 상대할거라는 생각을 할 때 약간 외국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중략) 그냥 제가 커 온 그 문화 속에서 편하고. 어... 제가 언제든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한테 어트랙티브(attractive)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에요." (Q)

"그쵸 왜냐면 영어를 잘하지는 않으시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이니까 잘 못해요 (중략)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교포는 교포이나 같이 김치찌개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러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O)

"저는... 사실 저는... 한국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해요... 음식 때문에..." (M)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젊어서는 행복하게 살더라구요 어느 인종의 사람하고 살아도 행복한데 나이드니까 좀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나이들어서 사시는분이 헤어지는데 내가 몇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 봤어요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대화가 안된데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부터 뭘 생각했냐면 한국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편해요 내가 학교에서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그랬는데 걔들하고 있으면 어딘가 불편해요 어딘가 나는 말 안해도 한국 친구들 내가 십분 전에 만났어요 한국 친구들 하고 있으면 편해요 말 안해도 편하고 대화 안해도 편하고 그런데 어딘가 벽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느끼거든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 하는 게 나는 너희들이 한국 사람하고 연애는 데이트는 외국 사람하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 근데 결혼은 한국 사람하고 했으면 엄마는 더 바랄 거 없다 나는 너네한테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만 데리고 와라... 1.5세대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한국 사람만... 한국사람 이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보고 친구들도 보는데 좀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 (K)

그리고 이러한 본인 및 자녀 배우자감을 생각할 때는 한국인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인종주의도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인종적 배경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아메리칸 어떻든 대충 뭐 괜찮겠다 싶었는데 좀 와이프는 좀 거기에 민감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좀 반대를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뭐 딸내미는 헤어지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뭐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건 이제 뭐 한국인이야 한국인. 한국 사람이고 또 뭐 유학 온 그 인제 그.. 그러니까 같은 학교 다니면서 유학 한국에서 유학 온 MBA 학생이죠. 아 MBA가 아니구나 경영학하는 언더 그레이드(under graduate)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와이프가 쫌 되게 좋아하더라고(웃음). 내가 이런 걸 볼 때..이 뿌리는 못 속인다 느낌이(웃음). 몰라 백인을 데리고 왔으면은 그나마 조금 뭐 반대가 덜 했을텐데 흑인이라서 좀 그런 일도 있었고 한국사람 사귄다니까 또 괜찮다그러고. 그래서 뭐 둘이는 뭐 하튼 좋아서 이러니까 뭐..모르지만 뭐 잘됐으면 좋겠고. 그런 감정 있고. 또 아들내미는... 2년 전부터 그 같은 학교의 한국 교포 2세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뭐 그 별 문제없이 지내는 걸 보면 그 애들이 이상하게 결혼생활 하는 걸 생각해보면 그래도 좀 같은 민족이 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족이 이제 뭐 불편하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미국사람이도 좀 뭐 지나치게 극단... 이상하다 말이 쫌 이상하다만은 이 서로 정서를 이해해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쪽은..그 아프리칸 어메리칸 쪽은 왠지 모르게 우리와는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애들 결혼생활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C)

"부모님은 남자 친구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알겠죠 (상황을)... 부모님은 (딸이 외국인, 그것도 흑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구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가슴아팠을지... 그리고 결국은 부모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저에게 제대로 된 배우자가 아니었고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된 사위가 아니었고... 왜냐면 우선적으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백인도 아니고... 흑인이었으니..." (G)

또한 자녀의 배우자로 한국인을 선호하는 것에는 동질적인 배경을 가진 인척과의 편안한 상호작용만 기대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태어나는 '완전한' 한국인인 손자녀에 대한 기대도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완전한 한국인 손자녀와 편안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은 욕구도 작동하고 있었다.

"별로 이렇게 상관, 상관없는 것 같에요. (중략) 근데 이제 어.. 한국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조금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중략)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걔의 어차피 아마 영어로 다 패밀리 공통 랭귀지가 영어일텐데. 중국사람 오나 누굴 오나 별로 상관이 없는데, 걔가 부모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랑 이렇게 인터랙트(interact)하고 이러는 게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에요.." (H)

"부모님은 미래에 완전한 한국인 손자녀를 원하세요. 한국말로 손자녀에게 말할 수 있고... 가족 모임을 할 때도 (같은 한국 사람이면) 훨씬 편하고...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편하게 한국말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어느 정도 영어 장벽(barrier)이 계속 있으신 것 같구요..." (R)

한편, 한국인 내에서도 선호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이민자로 살아온 기간에 따라 생각 자체가 다르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동질적인 이민 세대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이민 생활이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하고, 갓 이민 온 사람은 갓 이민 온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 아들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누가 중신을 했는데 한국에서 얼마 되지 않는 아가씨를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실은 오래

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끼리 해야 하고 한국에서 새로 온 사람은 새로 온 사람끼리 해야 해요. 왜냐면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여기 오래되면 처음엔 순진해요 아니면 아니야 니가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근데 한국사람은 아니다가 됐다 그렇고 아니다가 됐다 그러잖아요" (F)

"근데 저는 결혼을 한다면 꼭 2세랑 하고 싶어요. 한인 2세... 유학생은 안 맞더라구요 유학생 남자들은 제가 이미 너무 아메리칸 해서 제가 너무 억세다고 그 남자애들은 저를 볼 때 너무 억세다거나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거나 너무 눈치를 안본다거나 너무 외모에 관리를 안하고 막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얘가 여자로 안보여 이런 경험도 많이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 유학생이나 한국 1세를 보면 남자로 안보여요" (I)

그러나 자녀 및 본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미국에 와서 여기서 이제 애를 낳고 키웠는데 한국 애들 중에서 결혼해라. 그건 너무 셀렉션(selection)이 저기한 것 같고 리어리스틱(realistic) 하지 않은 것 같애. 한국 애랑 결혼하는 거 원하면 한국에서 키워야지 왜 미국에서 키우면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걸 강요하나. 그건 좀 언리저너블(unreasonable)하게 생각..." (H) 된다고 한 진술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가 배우자로 한국인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꼽는 자녀의 배우자감은 동양인이었다. 어차피 부부가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이나 정서가 비슷한 동양 사람이 자녀 및 본인의 배우자감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한국음식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음식점가고 그러면 바로바로 하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꼭 한국 사람이라는 거 보다는 동양 사람인 것 같에. 동양 사람이라는.. 어.. 그러니까 중국여자 같은 경우도 거의 한국 여자랑 비슷하게 보는 것 같에. 패밀리가 인볼브(involve) 되지 않는 한 자기네들 끼리 있을 땐 어차피 영어로 하고..." (H)

한편, 이러한 인종적 선호에도 불구하고 이민 2세대인 연구 참여자 R씨는 본인의 경우 인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인종의 사람과 결혼할 때는 이런 인종 간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으로 인식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이민 1.5세대인 연구 참여자 M씨도 자녀가 한국인과 결혼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배우자로 인종이나 민족 배경보다는 그 상대자가 어떻게 컸으며,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친구가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는 동양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측되고... 이제는 이런 게(인종 간 결혼) 매우 정상적이라고 사회가 보길 희망하죠." (R)

"애들이 한국 이민자와 결혼할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죠... 전혀 기대하지 못하죠... 백인을 데리고 와서... 인종이나 민족 배경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놀라든... 민족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직업이 뭔지... 이런게 민족 배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M)

3) 한국인, 나아가 동양인 중심의 네트워크

연구 참여자들이나 이들의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이 편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편할 수 있는 배경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미국사회에서 관계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한국인 간의 독특한 '정(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냥 편하죠 그냥 너무 서로들 잘 아니까 뭐 그냥 편하고 그런 거죠 뭐..." (K)

"대학교 때 이제 유학생들이랑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때 유학생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느낀 그... 한국적인 그런 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내가 굉장히 어태치(attach)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로지컬(logical)하고 리즈너블(resonable)하고 뭐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근데 어느, 특히 대학교 때 좀 느낀게 뭐냐면 점점 그게 지금까지 계속 살면서 세지는 거는.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 좀 리레이션쉽(relationship)을 쌓다 보면 그냥 간까지 다 내 줄만한 거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벽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어.. 그게 꼭 나쁜 인텐션(intention)이 있어서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그 끈끈한 그 맛이 없더라구요. 정확하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를 도와주고 이럴 때도 자기 선은 확실히 지키고... (중략) 둘은 가면 식구들끼리 같이 놀고 그래하는데, 우리 룸메이트를 2년 이상 했는데 한 번도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그... 리밋이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좀 많이 느꼈고. 하튼 여러 가지로 좀 그.. 굉장히 친하니까 분명히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건데 한국 정서로 생각했을 때. 그걸 안, 못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맘에 안들었어요. 그게 한국..의 정서, 정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아예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아는 상태에서 비교가 되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이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그런 게 좀 그리워지는 것 같에요." (H)

이런 연유로 이민 2세대인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미국인 중심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생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한 이민 2세대의 경우에도 대학에 들어가면 한국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양인들과 배타적인 모임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는 아시안 애도 별로 없었지만은. 굉장히 미국 애들 그룹이었는데. 대학교 딱 가더니 서클이 딱 한국 애들이랑 뭉치더라고요. 근데 그 그룹에 딱 동양 애들이야, 한국말, 한국 애들이기보다는 동양 애들이었어요. 딸도.. 걔도 고등학교 때는 다 미국친구였었는데 대학교 가더니 바로 코리안, 아니면 브로드(broad)하게는 아시안 그룹. 거기에서 거의 익스클루시브(exclusive)하게 행 아웃(hang out)을 하더라구요." (H)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 1세대, 1.5세대, 2세대 1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이 어떤 맥락과 의식 속에서 형성, 지속 또는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제 분석법을 이용하여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표현형은 미국식, 내면형은 한국식인 생활의례와 두 번째, 한국인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표현형은 미국식, 내면형은 한국식인 생활의례'라는 대주제에 대해서는 (1) 한국식 생활의례를 지낼 수 있는 이민 1세대의 사망과 미국식 생활의례, (2) 미국식 생활의례에서 준비되는 한국 음식, (3) 겉은 미국식, 속은 한국식 통과의례, (4) 한인교회 중심의 의례, (5) 한국식 의례의 지속성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한국인 정체성'이라는 대주제에 대해서는 (1) 한국인 대 미국인 정체성, (2) 배우자나 인척으로 우선시되는 한국인, (3) 한국인, 나아가 동양인 중심의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물리적으로 미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실제적으로 일을 쉬는 날인 미국의 휴일을 중심으로 생활의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식 휴일을 지내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한국식 면모를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생활의례 속의 한국식 양식은 음식에서 가장 구체화된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한국 전통 음식의 문화성에 깃들여 있다는 주장(S. Chin, 2011)처럼, 한국 전통 음식은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선호된다. 한편, 이민 1세대 여성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추석, 구정, 제사 등 한국 전통의 생활의례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이민 1세대 여성은 한국식으로 생활의례를 지내고 가족을 모이게 하는 구심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미국 휴일이기도 한 1월 1일 신정은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이 새해맞이라는 의미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도 주는 등 전형적인 한국식으로 지낸다.

한편,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 통과의례는 미국식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한국인이며, 표현된 양식 외 내면적인 것에는 한국식 통과의례 형식이 습합되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종교 및 이민 세대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문화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관심은 미국 내 다른 인종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는 생존 전략의 한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한국 전통의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독특한 한국 문화의 결정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유교식 제사절차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보인다. 그리고 한국계 이민자에게 교회는 신앙의 장소 이상의 역할을 담

당한다. 교회를 통해 한국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명절 및 가족 의례 등 중요한 생활의례가 이루어진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를 이민 세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민 1세대나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도구적 목적에서 이민을 선택한 1.5세대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별다른 혼란 없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민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는 정체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살거나 미국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고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종차별 경험이나 미국 주류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시선 때문에,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보이거나 한국인 정체성을 강하게 확립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인종차별 경험에 따라 이민자들의 민족 정체성 형성과정이 다양해진다는 Waters(1994)의 지적처럼, 이민 1세대와는 달리 이민 1.5세대나 이민 2세대의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경험한 인종차별 경험이나 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본인이나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극대화되어 표현된다.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이민 2세대에서 다른 민족과의 통혼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Qian & Lichter, 2007)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현상 이면에는 여전히 같은 민족 집단 내에서의 동질혼에 대한 선호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이민 세대와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미국사회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미국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벽(壁)'을 한국식 '정(情)'으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가고 있다.

이처럼 뉴저지주와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경우 일상생활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생활의례나 통과의례의 표현형은 미국식에 동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준비하는 음식이나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면형은 한국식 문화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내 한인가정의 경우 주류문화인 서구문화보다는 대체로 한국문화권의 특징을 보이는 등 이민 1세대의 경우 문화 변화는 극히 적으며, 이민 2세대의 경우에도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국의 전통적 가족 문화를 내재화하고 있고 문화 습득이 잘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C. Park & J. Seong, 2012)가 본 연구에서도 생활의례나 통과의례의 내면형에서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서 생활의례와 한국인 정체성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민 사회에서 소수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성공을 이뤘지만(S. Choi, 2011),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생활의례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 정체성은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소수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전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은 전략적으로 주류사회에 바로 편입되기 보다는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타 문화와의 교류는 경제활동에 제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결과(C. Park & J. Seong, 2012)가 본 연구에서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 내 한인가정의 경우 주류문화인 서구문화보다는 대체로 한국문화권의 특징을 보이는 등 이민을 왔어도 문화 변화가 극히 적으며, 가족에 관한 가치관에서는 한국식 전통 가치를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근거에는 민족 의식과 전통 문화가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인종적, 문화적 소수민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불이익을 완충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Y. Choi & Y. Kim, 2010)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이민자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민자의 문화적, 심리적 측면은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출신국의 문화적, 심리적 요소는 이민자가 이민 사회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민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생활의례에서 표현형은 동화전략이지만, 내면은 분리전략이 적용된다. 또한 한국인 민족정체성에 있어서는 명백히 분리전략이 적용된다. 특히 영어에 대한 장벽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서 강력하게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이민 사회라는 물리적 환경에서도 심리적 정체성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의 문화적, 심리적 측면을 변화시켜서 이민국의 새로운 일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동화주의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달성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 변화를 통해 미국 한인가정 내 변화를 살펴본 연구(Y. Choi & Y. Kim, 2010)에 따르면, 이민 2세대 한인 청소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국의 전통적 가족 문화를 내재화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긍정적이고 강한 정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동화의 압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민자가 출신 국가 및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정체성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이민국의 주류사회가 이민자를 인식하는 태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본 연구에서도 언어에 장벽을 덜 느끼는 이민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 본인은 미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의 주류문화가 구분 짓고 차별하면서 한국인 정체성으로 변화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문화적 통합이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나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는 자국민의 수용성과 사회구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민법도 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여기 보니깐 그 멀티 컬처랄(multi-cultural family)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되게 좀 나빠.. 나쁜 것 같고...” 라는 연구 참여자 A씨의 지적처럼,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사회에서도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도 다원주의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문화와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포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미국 내 한국 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재외교포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일체감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의욕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재외국민참정권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투표 참여 과정이 미국 내 이민 사회 실정에 맞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그리고 정책 마련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교포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갈등을 증폭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J. Jang, 2010). 따라서 재외국민 만 명 시대에 어떻게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마련하면서 재외국민의 인적 자원을 한국 사회의 발전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 1세대, 1.5세대, 2세대의 생활의례와 민족 정체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생활의례에 어떻게 한국문화가 내면화 되어있고, 이러한 한국식 생활의례가 한국계 미국인의 민족 정체성과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소수 민족으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이민 세대, 나이,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뉴욕시와 뉴저지주 등 미국 내에서도 한국계 이민자가 밀집해서 모여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경우 한국계 미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 비해 한국식 생활의례를 유지하기가 쉽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기에도 용이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계 이민자가 밀집해서 모여 사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비교적 한국계 이민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생활의례와 한국인 정체성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생활의례 및 한국인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이민자의 문화적, 심리적 변화가 이민국의 강한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가 쉽지 않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정책이나 재외교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할 때에도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REFERENCES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Berry, J. W. (2002).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531.

Carliner, G. (1980). Wages, earnings and hours of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American males.

Economic Inquiry, 18(1), 87-102.

Chi, T. (2005). *East Asian America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anta Barbara, Denver and Oxford: ABC-Clio.

Chin, S. (2011). Cultural character inherent in Korean traditional food: Focusing on globalization strategy. In Chunbuk University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Center, *Korean Cultural Identity and Globalization Strategy*, 36-45.

Choi, S. (2011). The centennial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Evaluation and prospect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2*(1), 151-168.

Choi, Y., & Kim, Y. S. (2010). Acculturation and the family: Core vs. peripheral changes among Korean Americans. *Studies of Koreans Abroad, 21*, 135-190.

Han, K-K. (2014). An anthropological study of the multicultural transformation of a Korean-American nonprofit organization. *Studies of Koreans Abroad, 34*, 165-296.

Hoeffel, E. M., Rastogi, S., Kim, M. O., & Shahid, H. (2012). *The Asian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s (C2010BR-11)*. Retrieved from http://www.census.gov/prod/cen2010/briefs/c2010br-11.pdf.

Jang, J. Y. (2010). *Overseas Koreans should think again suffrage*. Retrieved from http://www.khantoday.com/news/service/article/mess_03.asp?P_Index=3763&flag.

Jo, M. H. (1999). *Korean immigrants and the challenge of adjustment*. Westport, CT: Greenwood Press.

Kang, H., & Larson, R. W. (2014). Sense of indebtedness toward parents Korean American emerging adults' narratives of parental sacrifi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9*, 561-581.

Kang. S. B., & Kim, K. S. (2012). Socioeconomic adaptation process of Korean immigrants in United States. *Area Studies, 28*(1), 19-38.

Kim, E., Im, H., Nahm, E., & Hong, S. (2012). Korean American parents' reconstruction of immigrant parent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9*, 124-132.

Kim, H-Y. (2011). Assimilative immigrant policy of the US and multi-culturalism. *Studies in Humanities, 28*, 247-268.

Kim, L., Knudson-Martin, C., & Tuttle, A. (2014). Toward relationship-directed parenting: An example of North American born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 mothers and their partners. *Family Process, 53*, 55-66.

Kim, S., & Kim, L. (2014). Computer-based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changes in the practices of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6(4), 91-126.

Lee, C. N. (2007). *Asian American assimilation*. NY: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Lee, H., & Mason, D. (2014).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in coping strategies betwee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 American older people.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9*, 429-446.

Lee, J. (2002). Korean in American immigration histor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4*(1), 109-122.

Lee, S. (2008). Expansion of Asian Immigration and American Dominant Cultural Forces' Bordering on the Asian Americans.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0*(3), 59-83.

Lee, S. (2012). The impacts of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provisions, and acculturation attitudes on paren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3*, 71-87.

Lim, H. B. (2012). A study on the U.S. immigration policy: Period division and its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2(2), 273-290.

Lowe. L. (1996). *Immigrant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 London: Duke UP.

Min, K. H. (2006). Poverty among Korean Americans in the U. 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0*(2), 227-266.

Min, P. G. (2006). *Asian immigration*. In Pyong Gap Min (ed.).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2nd ed.). Thous and Oaks, London, and New Delhi: Pine Forge Pres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1). Retrieved from http://digitalbeing.tistory.com/entry/%ED%95%9C%EA%B5%AD-%EC%9D%B4%EB%AF%BC%EC%9E%90%EC%88%98-%ED%86%B5%EA%B3%84.

Moon, S. (2012).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culture in America and acculturation process of Korean immigrants through historical research-case study of Chicago Koreatown.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26*(4), 47-86.

Park, C. Y., & Seong, J-Y. (2012). The impact of acculturation on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mericans, *Speech & Communication, 19,* 7-37.

Pyon, H. T. (2012). Understanding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s: Considering their diversity and educational experiences. *Studies of Koreans Abroad, 28,* 85-122.

Qian, Z., & Lichter, D. T. (2007). Social boundaries and marital assimilation: Interpreting trends in racial and ethnic inter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 68-94.

Waters, M. C. (1994). Ethnic and racial identities of second-generation black immigrants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Immigration Review, 28*(4), 795-820.

Yang, J. W. (2010). A study on early adaptation process related to Korean immigrants in US -Residents in Koreatown, L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1*, 113-142.

Yang, Y. (2008). A study on the ethnic relations of professional agents of Korean American. In Yang. Y., Moon, O. P., Park. K-Y., Lee, J. D., & Chae, S.. *Ethnic relations in the LA Korean (pp. 133-176).* Seo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Yi, J. (2008). Korean Americans' leisure and their ethnic identity. *Culture & Society, 4,* 6-42.

Yoon, H., & Jang, Y. (2014). Self-rated mental health in socio-structural contexts: An examination with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Aging & Metnal Health, 18*(6), 777-783. Retrieved from http://dx.doi.org/ 10.1080/13607863.2013.878685.

□ Received: March 14. 2016
□ Revised: June 2. 2016
□ Accepted: June 13. 2016